

경건하고 믿음직한 생활공간

가람은 무엇인가? 물론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이며, 불자들의 예배장소이다.

그러나 불 법 승 삼보의 승단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수도원이기도 하다. 출가한 스님들이 먹고 자고, 수행하는 큰 집이다.

과거 산중불교 시절, 절만한 절에는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스님들이 거주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가지고 조직적인 수행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가람을 유지해 왔다. 어떤 분은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관승의 소임을, 어떤 분은 가람의 살림과 포교를 담당하는 사판승의 소임을 맡는다. 사판승 가운데도 재주나 총무와 같은 행정직이 있는가 하면, 먹거리 공양을 해결하는 후원을 담당하는 원주스님과 같이 살림승도 있다.



순천 선암사의 대규모 승방인 무량수각. 선암사 승방은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체계적인 생활, 여유가 깃든 옛 승방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몇 안되는 소중한 곳이다.

선암사 승방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18



스님의 수행·살림·여유 깃든 □자형 건물 짜임새 빼어나

리우는 큰 방이 마련된다. 이 방은 승방 식구 전원이 모여서 식사 공양, 참선수행, 경전강론, 신도법회 등 다양한 행위로 활용된다. 또한 스님들의 휴식을 위한 누각마루와 안마당도 마련되어 있다. 이들 시설들은 서로 크기와 높이가 다르다. 승려 1인을 위한 개별 승방은 작고 아늑한 방이지만, 대방은 30여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6~8칸 크기이며 높이도 높아야 한다. 창고와 누각마루는 보통 방들보다 한층 높은 2층에 설치되어야 하고, 부엌은 오히려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승방은 1층과 2층 공간이 뒤섞여 대단히 입체적인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승방에는 항상 스님들의 생활이 펼쳐지고, 따라서 일반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아무리 성직자라도 세수나 빨래, 용변 등 자질구래한 일상사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생활이 일반 불자나 방문객에게 노출되면 성직자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방문객들의 간섭과 구경에 시달려 스님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승방 내부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승방은 담장과 건물벽으로 감싸지며, 유일한 출입구를 통해서만 안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은 다름 아닌 부엌문이다.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대문인 줄 알고 열어보면 부엌이니, 익숙치 않은 이들은 아내 들어서고 만다. 또한 부엌에는 항상 아궁이를 관리하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강심인 외부인이라도 이들의 저지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전국 사찰 가운데 선암사에 있는 4개의 □자형 승방들은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는 우수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선암사의 승방들만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 어느 사찰이나 그윽하고 건축적인 승방들이 있었다. 단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스님들이 줄어들었고, 해방후의 전란과 화재, 그리고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 등으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선암사의 승방들은 가장 충실하게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건물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암사의 승방들은 수십명의 스님들로 가득차 있고, 수행과 강론 등이 벌어지고 있다. 선암사의 승방들이 보존된 것은 스님들의 생활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찰들에는 승방을 지킬 스님들이 없고, 주인없는 한국건물들은 곧 수명이 끝나 버린다. 선암사 스님들의 노력과 수행생활이 없다면 선암사의 그 아름다운 승방들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승방건축은 왜 아름다운가? 거기에는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체계적인 생활과, 그 속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방치된 문화유산 소중함 일깨워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서리 석조여래입상을 찾아 연대와 양식등을 조사하고 있는 석불문화연구회팀.

결산

현대불교는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함께 2년간 총 20회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미지정 돌부처를 찾고 역사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본사의 돌부처 찾기운동은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가 담담하고 문화재전문위원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고조했다. 주로 마을주민과 인근사찰 스님들의 재보가 이뤄졌고 답사를 가보면 대부분 관리소홀로 나뒹굴고 있거나 민산들의 기도처로 변화된 곳도 있었다.

2년동안 답사한 돌부처 21기중 7기가 약사여래불, 6기가 석가여래불, 5기가 미륵불, 2기가 관세음보살, 1기 비로자나불 순으로 나타나 민간에 미륵신앙보다 오히려 약사불사상이 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소개된 미지정 돌부처중 제천 명암리 미륵불,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이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고양시 약사여래불 1기에 보호각이 마련됐으며 담양 마애석불 입상에 대한 인근 사찰스님 관리인등록의 성과를 거뒀다.

'돌부처를 찾습니다' 캠페인에는 일반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돋보였다. 예명법사(군북고진흥회 부회장)등 10여명의 불자들은 본지가 찾아낸 돌부처들을 참배하며 기도하고 공양물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내년부터는 돌부처찾기는 물론 보호 및 참배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화재 보호단체를 창립하여 석불회와 연계, 미지정 문화재 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운동을 펼치는 동안 한적한 곳에 위치한 돌부처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과 농번기를 이용하여 마을 앞마당등에 보관해온 돌부처를 분실등도 있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최근에 문화재도난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등에 방치돼 있는 돌부처들의 분실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돌부처 찾기운동을 진행하며 종단과 사찰들의 무관심이 미지정문화재의 훼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문화민족임을 내세우지 않는 만부에서도 지정돼 있는 문화재 보호에만 신경을 쓸 뿐 새로운 유물을 발굴한다거나 지정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철회원은 "불교연군의 관심으로 미지정문화재의 가치가 홍보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켜지는 계기가 된다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2년간 고증을 해온 정영호교수는 "현대불교가 펼친 돌부처 찾기운동은 곧 우리정신의 근간인 성보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민족문화살리는 한 방편"이라며 "문화재는 한번 사라져 버리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석불연구회를 이끌며 돌부처를 답사해온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외대)는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부처 찾기운동을 펼치지만 이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단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a.com)

2년간 21기 답사 고증 2기 문화재 지정 신청

최근 돌부처 분실 찾아 종단·정부관심 아쉬워

가림이 보람

2년간 고증을 해온 정영호교수는

문화재 전문위원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용국사 영혼의 쉼터 (법당식 납골당) 국내 최초 건립

납골당에도 명당이 있다 "영혼의 쉼터가 왜 명당인가"

- ◆ 보물 373호, 472호로 지정된 1300년 고찰터
- ◆ 사방이 병풍을 둘러친듯 영산의 명당지
- ◆ 건평 200평 대법당에서 평생동안 부처님 공전에서 영생불사한다
- ◆ 조석예불과 2배(사시) 마지막공양을 영전에 올리며
- ◆ 향시 대법당에서 기도, 독경, 염불을 모실 수 있다
- ◆ 제사, 불공, 49제를 의식할 수 있다
- ◆ 평생관리 허가증 발급 ◆ 24시간 순찰경비

불자의 평생소원 법당식 납골당 드디어 공개 영혼의 쉼터로...

효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중이 따를 수 없다 효는 가정에 근본 중은 민족에 정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사후에 마지막 기회"



벽화산 용국사 전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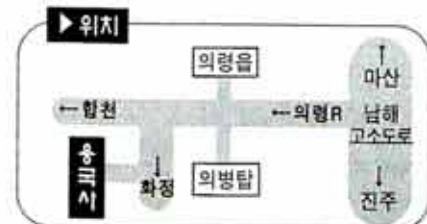
기공식 특별기념

납골함+영전+위패+평생관리=350만원(1기당) 안치 및 예약 기공식 특별기념으로 200명 선착순 1기당 175만원 사망한 유골, 타지역유골을 즉시 법당에 안치할 수 있다



위패(향목) 옥석2단향 영전(향목)

용국사 버스 운행표 (일요일 휴무)	
· 부산 한아름 예식장 앞(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	08:30 출발
· 창원(창원역전 앞) 09:50 출발	
· 마산(마산역전 앞) 오전 10시 출발	
용국사 도착 10시 30분(영혼의 쉼터)	



건평 200평 대법당에 안치할 납골당 내부전경

문의 및 연락처 (055) 572-3233, 3533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852